

완도교육청 신규 공무원 멘토링 성과회

2016년 부터 올해로 4년째 운영중

실무 통해 업무 학습...효율적이라는 평가

전남완도교육청은 20일 완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일반직 공무원과 선배 멘토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규 일반직 공무원 멘토링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운영배경 △2019년 활동내용 △분임별 활동 결과 △운영성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올해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는 선

배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다양한 실무교육과 선배·동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여 월 1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 조기적응에 기여하고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공무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멘토링 참가자인 고금초등학교 양호운 주무관은 "올해 멘토링제는 완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분임별 활동을 통해 인접 지역의 실무자와 업무를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언제든 부담없이 물어 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어 근무 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호 행정지원과장도 이날 자

리를 함께하여 멘티와 멘토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성과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내년엔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루돌프와 심술산타' 인형극 상연

광주시유아교육진흥원이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5세 자녀를 둔 70여 가족을 대상으로 '루돌프와 심술 산타' 인형극 공연이 있는 가족체험을 운영했다.

'루돌프와 심술 산타' 인형극 공연과 다양한 마을 체험으로 진행된 가족체험은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의 핵심가치를 미래인재에게 심는 사

회공헌의 교육기부로 마련됐다. 특히 극단 '도깨비'의 인형극 공연은 산타와 루돌프의 흥미진진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가족 사랑과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 관람을 한 학부모는 "루돌프와 심술 산타' 인형극을 가족과 함께 감상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 고등학교 수업료 12년 연속 동결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일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을 고시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2009학년도부터 12년째 동결 중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0학년도 2~3학년 학생의 수업료는 면제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전년과 동일하다.

시교육청 이왕도 경리팀장은 "교육 재정이 어렵지만 학부모님들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교사의 자발적 수업성찰 연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 수업 디자인

전남교육청이 20일부터 이틀간 보성청소년수련원에서 중, 고등학교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 수업 디자인하기'이라는 주제의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일체화 연수는 교사들의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사회, 과학, 기타 교과 분임 별로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재구성하고 2020학년도 1

학기 교육과정을 디자인해보는 실습과 수업 사례 나눔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 강사로 나선 경기나루고 이명섭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는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허성은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후원금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23일 (제)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 식비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광주전남도회 최봉호 회장은 "비록 2019년 초·중·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지만, 식비가 부족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았다"며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지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결식학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국외체험학습

진도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자연·예술영역의 우수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상해 일원에서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들의 세계관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운영된 이번 체험학습은, 대한민국의립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불태운 역사의 현장인 '상해 대한

민국입시정부 유적지'와 윤봉길 의사의 항일 의거 현장인 '홍구 공원'을 방문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해 최고의 전망 타워 '둥방 명주'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상해의 도심을 내려다보고, 예술 공연 및 중국 정원양식을 대표하는 예원 옛 거리 등을 방문해 다양한 중국문화를 체험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교육청, 21세기 독립운동가 양성기

무안교육청은 항일 독립운동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4박 5일) 초·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항주, 가흥 등 중국일원에서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중국 역사·문화 탐방은 지난 7월부터 실시했던 중국문화 체험캠프 활동 시 인성평가와 자기소개, 중국어 인터뷰 등을 통한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하여 두 차례 사전 캠프를 통해 공동체 세우기, 국제적 질 교육과 물레방아 토론, 두마음 토론 등 다양한 토론활동을 통해 21C 독립운동가로서의 역량을 강

화했으며, 탐방 후에는 성장 열매 나누기, 책거리 등 사후 캠프도 실시했다.

무안교육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역사·문화탐방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깊었다. '우리는 21C 독립운동가, 성장일기를 쓰다'라는 주제아래 항일 독립운동의 산 현장을 탐방하고, 활발한 토론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